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12
Vol. 559
2022 December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교정의 희망과 행복

12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Re: Member

올해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맞이하는 새해

새해가 돌아오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각자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목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가 없었다면 새해는 있을 수 없죠.
새해를 더욱 잘 보내기 위해 올해를 기억하고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월간 <교정> 12월호에서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CONTENTS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Re:member

04 교정 이모저모 1
담장 밖으로 나온 우리의 '진짜' 이야기
연극 <담장 밖으로>

08 교정 이모저모 2
2022년 제62회 한국교정학회·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공동학술대회

10 역사와 오늘
통영구치소

18 생각의 접점
희망과 설렘으로 맞는 교정의 2023년
통영구치소

20 응원의 선물
보안과를 떠받치는 든든한 '행정 주춧돌'
통영구치소 보안과 보안행정팀

24 묻고 답하다
경력의 반대편에서 동료애로 하나 되다
통영구치소 교감 서덕순 & 교도 김지현

28 교정의 가치
교정교화와 지역사회의 힘찬 동행을 꿈꾸다
통영구치소 교정협의회장 김형길

30 취미의 공유
건강한 단합을 향해 호쾌하게 스매시!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

34 전문가에게 묻다
손으로 완성하는 언어 수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 홍성호 & 수어통역사 신명순

38 나도 패션왕
한 번쯤 카메라 앞에서 멋진 패션왕처럼 '찰칵'
원주교도소 교위 권혁진

42 교정 안에서
참회와 반성의 마음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44 교정의 일기
자유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배우는 공간
천안교도소 대체복무요원 김형근

Re:mind

46 여행 속 휴식
올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빛낼 빛의 명소
반짝반짝 빛나는 두근두근 설레는

50 문화가 중계
상담이 필요해?
오은영 박사 전성시대의 명과 암

52 교정 리포트
가석방제도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수형자와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②

58 교정 NEWS

65 모범 공무원

66 독자 마당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12월호 Vol.559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2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온 우리의 '진짜' 이야기
연극 〈담장 밖으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와 충주구치소 박종덕 교감의 감동적인 사연을
모티브로 삼은 연극이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총 2회에 걸쳐 무대에 올랐다.
현직 교정공무원 3명이 극본과 연기자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
연극 <담장 밖으로>가 그 주인공이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연극의 발단이 된 소중한 인연

색색의 조명으로 물들었던 무대가 서서히 암전됐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슬몃슬몃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법복을 입은 청주교도소 김충호 교감이 미결수를 향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성여 씨를 모델로 삼은 극 중 인물 박영식과 그의 어머니의 절규와 함께 또다시 암전이 찾아왔고, 어느새 교정공무원 제복으로 갈아입은 김충호 교감이 연극의 주인공 이 교사로 변해 있었다. 극 중 교정공무원 후배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옆자리에는 악질 형사 역을 맡은 여주교도소 강인호 교감이 앉아 있었는데, 만취한 연기를 어찌나 맛깔나게 하는지 웃음이 절로 터져 나왔다. 원작 시나리오를 집필한 천안개방교도소 이경희 교감도 프로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한 두 교감의 연기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연극 <담장 밖으로>의 마지막 리허설 현장은 탄탄하고 감동적인 극본과 희로애락 물씬 풍기는 연기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화기애애했다.

연극 <담장 밖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2020년 12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와, 성실한 수용 생활과 일관된 이야기에서 진심을 발견한 뒤 출소 후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재심 과정을 돕는 등 윤성여 씨를 끝까지 믿고 지원한 충주구치소 박종덕 교감의 감동적인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원작 시나리오를 쓴 이경희 교감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게 된 과정을 되새기며 입술을 뗐다.

"작년 12월 제가 교정본부에 있을 때 웹드라마 형식의 직원 교육 동영상을 기획, 제작하는 일을 맡았어요. 교정공무원들이 직접 배우로 활약하고 외부의 전문 스태프가 참여한 제법 큰 프로젝트였죠. 이때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며 배웠던 극본 작성법 등을 더듬으며 교육 동영상 시나리오를 직접 썼는데요. 당시 외부 스태프로 도와주신 광야의태양컴퍼니 조신후 대표님과 전단아 PD님이 극본을 보시고는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을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서울예술지원 공모'에 제출할 극본을 써 줄 수 있냐고 제안하셨어요. 미디어에서 대부분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쳤던 교정공무원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박종덕 교감님과 윤성여 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기로 하고 박 교감님의 허락을 받은 뒤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짬짬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죠."

원작 시나리오를 집필한 천안개방교도소 이경희 교감도 프로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한 두 교감의 연기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연극 <담장 밖으로>의 마지막 리허설 현장은 탄탄하고 감동적인 극본과 희로애락 물씬 풍기는 연기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화기애애했다.

순탄하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합은 순조롭게 맞아떨어졌다. 세 교감은 교정공무원의 일상과 수용자와의 관계,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연극에 면면히 녹아들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광야의태양컴퍼니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실질적인 모습을 관객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힘겨웠지만 뿌듯했던 3개월간의 전개

비록 '2022 서울예술지원 공모'에는 떨어졌지만, 광야의태양컴퍼니와 이경희 교감은 극을 무대에 올리기로 의기투합했다. 마침 광야의태양컴퍼니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극단으로 선정되면서 이야기가 술술 풀렸다. 각각 연출가와 총괄PD로 나선 조신후 대표와 전단아 PD는 보다 생생한 연극을 위해 교정공무원이 직접 배우로 활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이경희 교감은 직원 교육 동영상에 출연했던 교정공무원들에게 출연 의사를 묻는 연락을 돌렸다. 김충호 교감과 강인호 교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연극 <담장 밖으로>에 합류할 수 있었다. 김충호 교감이 "숙원을 풀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어릴 적부터 예능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그맨, 배우 시험도 여러 번 봤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이후 교정공무원으로 입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직원 교육 동영상에 출연하면서 오랫동안 묵혔던 꿈의 새싹이 다시 움텄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극의 주연 및 다양한 역할까지 맡게 됐으니, 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연극 합류 소식을 들은 가족들도 '이제야 숨겨 놓은 끼를 펼칠 수 있겠구나'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 줬답니다.(웃음)"

추석 직후인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김충호 교감과 강인호 교감은 매 주말마다 한 번씩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광태소극장으로 올라와서 연출가 및 배우들과 서너 시간씩 꾸준히 연습했다. 처음 3주 정도는 연기의 기본기를 익혔고, 이후 무대에 올라 손발을 맞추며 극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특히 보안과 야근부 소속인 강인호 교감의 고생이 심했다.

"매주 일정하게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근무 일정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며 최대한 연습 일정을 맞췄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날에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연가를 내며 연습을 진행했는데요.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우가 꿈이었던 아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빠지지 않고 연습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만큼 저도 연기에 매력을 느끼고 푹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인호 교감

김충호 교감

이경희 교감

전단아 PD

앞으로의 절정을 향한 열린 결말

순탄하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합은 순조롭게 맞아떨어졌다. 세 교감은 교정공무원의 일상과 수용자와의 관계,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연극에 면면히 녹아들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광야의태양컴퍼니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실질적인 모습을 관객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연극 특유의 재미와 감동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펼쳐졌다. 김충호 교감과 강인호 교감의 유쾌한 애드리브가 그대로 정식 대사가 되어 곳곳에 실리게 되면서 매주 대본이 수정됐고, 두 교감은 동료와 가족을 상대 역 삼아 수정된 대본을 머릿속에 업데이트했다. 이경희 교감도 대본 수정에 관여하는 동시에 때때로 간식과 함께 연습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광태소극장에 방문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엄마가 쓴 대본이라고 했더니 아이가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재미있는 장면이 많다며 칭찬도 해 주더군요. 공교롭게도 그날 김충호 교감님의 아들도 연습 현장에 왔는데,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해요."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2회차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세 교감과 황야의태양컴퍼니는 <담장 밖으로 시즌2>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연극은 이 교사와 박영식이 오래도록 함께하며 굳은 믿음을 형성해 가는 과정까지를 다뤘다. 출소 후 재심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인 셈. 재미와 감동의 농도를 한층 진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길인 만큼, 세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새 시즌 연극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제 막 올라온 이들의 '연극 꽃봉오리'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게 될까. 그 향기로운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우리의 담장 밖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광야의태양컴퍼니 **조신후** 대표

"교정공무원 분들과 수용자와의 관계, 수용 시설의 일상을 왜곡 없이 보여주고 박종덕 교감님과 윤성여 씨의 관계를 잘 전달하면서도 관객들이 무겁지 않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출하기 위해 힘썼는데요. 세 교감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시즌 진행을 위해 세 교감님은 물론 더 많은 교정공무원 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담장 밖으로>는 더욱 성공적인 연극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미·일 사례를 통해 마련한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의 혁신 방안

2022년 제62회 한국교정학회·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공동학술대회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교정 시스템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는 학술대회가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에서 열렸다. 바로 '2022년 제62회 한국교정학회·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공동학술대회'다.

글 강진우 **사진** 손호남

교정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교정학회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공동 주관한 '2022년 제62회 한국교정학회·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공동학술대회'가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L동 2층 영상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국제 선진화 방안'으로, 한·미·일 3개국의 교정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정교화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개회사를 위해 단상에 선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학자들과 교정 실무자들의 소통을 통해 조직적 측면에서 교정의 변화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참가자 모두가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한데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편 환영사를 맡은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은 "제62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를 우리 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학계에서 교정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일선에서 직접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대한민국 교정의 혁신적 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한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선진 법치행정의 기본은 우수한 교정행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출소자 재범 예방 시스템 및 방안이 향후 대한민국 교정의 신뢰 회복은 물론 국가 안전이라는 책무를 실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교정 실무자 및 학자,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은 세 연사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앞으로의 혁신을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와 제언

먼저 기조강연은 일본 법무성 교정국장을 거쳐 현재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와세다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사회안전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오하시 사토루 교수가 맡았다. 그는 '일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시스템'을 주제로 3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일본의 감옥법 개정 활동 과정, 나고야형무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으로 인해 2003년 3월에 설치된 형행개혁회의 활동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활동의 변화상,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출소자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 재범 방지 대책의 성과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강연 후 이어진 일본 가석방자의 재범률 하락 및 일본의 가석방 요건 관련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참석자들에게 교정 시스템 혁신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뒤이어 제1주제 '미국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시스템'의 발표자로 나선 박형아 세인트피터스대학교 형사사법학 교수는 미국의 제소자 현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시스템의 변화상을 다방면에 걸쳐 두루 이야기했다. 또한 재활·갱생, 회복적 정의, 재통합, 사회 재진입, 두 번째 기회법, 재진입 로드맵, 재진입 기관 협의를 위한 연방의회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2년 이후 출소자의 재범률이 2005년에 비해 10%가량 낮아졌다는 결과도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라광현 동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박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교정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교정 시스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마지막 주제인 '한국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한국 교정보호체계의 재범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 대상자의 수를 적정화하는 한편 최근 중시되고 있는 RNR원칙(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 및 출소자에게 교정교화 역량을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토론자인 이효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승영근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정관은 발표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교정 시스템으로 개편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자칫 간과될 수도 있는 부분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학구열 덕분이었을까. 총 4시간여에 이르는 토론과 발표의 시간이 어느새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제언은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의 선진화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수용자 인권 보장과 수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통영구치소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영구치소

2004년 개청한 통영구치소는
570개의 섬과 천혜의 비경으로 가득한
남해안 한려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 생활이 곤란한
수용자들을 위해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교정시설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해
원스톱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접견,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등을 실시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쾌적한 수용 생활을 위해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성실한 수용 생활을 위한 처우 개선

통영구치소는 수용자 처우 개선 및 심신 안정을 위해
가족만남의 집 등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야구동호회 창단 기념

“

통영구치소 교정공무원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화목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

2005년 민관군 대테러훈련 모습

2009년 직원 총기교육 모습

응급상황을 대비한 자체훈련 실시

통영구치소는 안전하고 철저한 수용 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자체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합동소방훈련 모습

2021년 코로나19 확산 대비 자체훈련 모습

2009년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모습

2011년 수용자 가을 체육대회 모습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행정 구현

통영구치소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수용자 체육대회,
구인구직 행사, 멘토링 데이 등 수용자가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수용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모습

2014년 장애수용자 재활 및 문화프로그램
행사 모습

직업훈련, 교도작업, 봉사활동 등
수용자의 심신 안정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2015년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모습

희망과 설렘으로 맞는 교정의 2023년

통영구치소

단 하루 차이지만, 새해 첫날은
예년과 또 다른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통영구치소 직원들도 더욱 행복한
한 해를 상상하고 계획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나의 새해 _____ 맞이법은 [ ]이다.

'10km 걷기와 달리기'

교감 최진

몸의 컨디션과 정신의 건강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그랬듯 새해 첫날에도
통영구치소 주변을 걷고 달리며
새해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려 합니다.

'구치소 앞 일출'

교위 강태화

저는 2017년 11월에 처음 통영구치소에 왔는데요.
그 뒤로 매년 1월 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구치소 입구 쪽 바닷가에서 일출을 감상하고
소박한 소원도 빌곤 합니다.

'가족과의 오붓한 하루'

교위 허대준

올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년과는 다른 새해 첫날이 될 것 같은데요.
가족과 함께 오붓하고 따뜻하게
2023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미륵산과 떡국'

교사 배종문

매년 가족과 함께 통영시에서 주관하는
미륵산 일출 행사에 다녀오는데요.
일출을 보면서 그곳에서 나눠주는
떡국을 먹으면 비로소
새해가 찾아온 기분이 듭니다.

'아내와 첫 새해 추억 쌓기'

교사 박지원

저도 허대준 교위님처럼 올해 결혼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송년회 겸 신년회를 가졌는데,
올해부터는 아내와 함께 경치 좋은 곳에서
새해 첫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새해 기념 캠핑'

교사 김태규

저희 가족은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캠핑장 중에서도 일출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그중 한곳에 가서 캠핑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일출을 바라보겠습니다.

'목표 세우기'

교도 박성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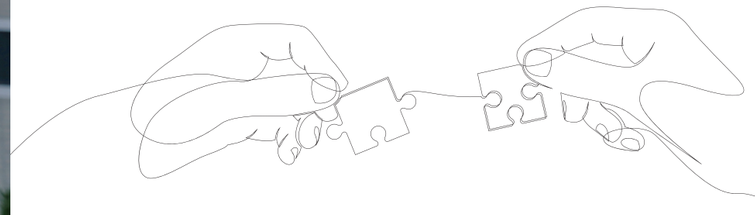
항상 새해 첫날이면 목표를
두세 가지를 세우곤 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목표는 벌써 세웠습니다.
바로 '보안행정팀에서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보안과를 떠받치는 **든든한 '행정 주춧돌'**

통영구치소 보안과 보안행정팀

배우나 가수의 빛나는 무대, 그 뒤에는 제작진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다.
마찬가지로 보안과 직원들이 일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통영구치소 보안과 보안행정팀은 특유의 단합력과
쾌활한 분위기를 주춧돌 삼아 보안과 직원들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묵묵히 궂은일을 도맡는 보안과의 '보이지 않는 손'

보안행정팀은 이름 그대로 보안과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다. 통영구치소 보안행정팀은 최진 팀장과 6명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원이 각종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보안행정주임과 보안행정서무, 소방 및 구치소 방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호, 미결수 및 기결수의 생활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실지정, 수용자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보안물품, 엄중 관리 대상자의 처우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특정강력 등으로 업무를 나눠 전담하고 있다. 최진 팀장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안행정팀에 대한 소개를 이어 나갔다.

"일선 직원들이 처리하기 까다로워 하는 업무나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일도 다수 맡고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무연고자 출소자와 출소자 자립을 돕는 외부기관을 연결시켜 주고 출소 후 데려다주는 무연고자 석방 업무, 형 집행정지 및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 처리, 효과적인 구치소 방호를 위한 제초 및 소 내외 환경 정리 등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듯 보안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때때로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순간들을 슬기롭고 유쾌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증상자와 확진자, 일반 수용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격리 수용동을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상황이 터지자마자 100명 넘게 수용자를 전실시켜야 했는데요. 거실지정 담당으로서 어마어마한 상황과 맞닥뜨리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때 팀원들이 저를 격려하며 전실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도와줬고, 덕분에 큰 규모의 전실 업무를 하루 만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팀원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죠."

최진 팀장은 화목한 팀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팀 전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급박한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팀원들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 이러한 보안행정팀의 집단지성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으로 연결되며, 이는 팀의 능력과 사기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만약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는 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 팀은 아마 그 많은 업무를 모두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료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거들어 주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자면, 팀장으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이따금씩 사무실이 시끄러워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활기찬 사무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팀워크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웃음)"

보안행정팀은 유사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대책반으로도 활약한다. 코로나19의 소 내 확산 저지 및 상황 종료를 위해 대응 계획 수립 및 실행, 격리 수용동 지정, 폐기물 처리, 수용동 내외부 소독, 직원 교육, 상황 보고 등을 두루 맡고 있다. 실제로 올 3월 의료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안행정팀은 곧바로 코로나 대책반으로 전환해 맡은 바 임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했으며, 덕분에 단 한 명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 없이 두 달여 만에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모두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집단지성

보안행정팀 직원들은 인터뷰 내내 한결같이 "서로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돕는 팀원들 덕분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남달리 돈독한 팀워크를 강조했다. 거실지정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규 교사는 올 3월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팀원들의 덕을 톡톡히 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더 나은 통영구치소를 향한 고민과 노력

통영구치소 보안행정팀은 최근 교정본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안 근무 환경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안과 야근부는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4부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선에서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때때로 윤번 휴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야근부 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고 8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틀 연휴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한편 일근 근무자의 야간근무 지원 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보안행정팀은 근무 직원 재배치, 보안배치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 실행해 나가고 있다.

"보안근무 환경 개선은 통영구치소의 근무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팀과 타 부서 직원들에게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퇴, 외출, 연가 등을 활발하게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먼저 소 밖을 나선 직원들을 위해 기꺼이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죠. 우리 소 내에 배려, 존중, 협조의 분위기가 잘 갈려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안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때때로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순간들을 슬기롭고 유쾌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보안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이다. 감염병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겨울철이 찾아옴에 따라 외부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때문에 요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보안행정팀. 하지만 막연한 걱정보다는 당장의 실천이 중요한 법이다. 최진 팀장과 팀원들은 비상시 실행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확산 방지책을 모색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보안행정팀이 있기에, 통영구치소의 내일은 오늘보다 밝다.

MINI INTERVIEW

늘 고마운 팀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팀은 지금껏 난관을 이겨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일에 도전했고, 결국 마침내 해내고야 말았죠. 이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열심히 일해 봅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안행정팀 최진 팀장

경력의 반대편에서 동료애로 하나 되다

통영구치소 교감 서덕순 & 교도 김지현

입직 2개월 차 신입 교정공무원과
퇴직을 6개월 앞둔 베테랑 교정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력 차이가 확연한 만큼 어느 정도
어색함이 감돌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두 사람은 신입과 베테랑이기 이전에
같은 교정공무원이었으며,
동료애를 바탕으로 새해와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제복 덕분에 연결된 두 사람의 인연

서덕순 교감 —— 김 교도가 통영구치소에 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고 있네요. 한창 적응에 정신없을 시기일 텐데, 행정직에서 교정직으로 넘어온 뒤 지금까지 생활해 보니 어떤가요? 일은 적성에 잘 맞나요?

김지현 교도 —— 제복을 입고 활동적으로 일하는 교정공무원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어서 큰 마음먹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출근을 위해 잠옷에서 제복으로 갈아입는 매일이 설레고 행복할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고향인 통영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무척 의미가 깊네요. 교감님은 1986년에 입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교정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서덕순 교감 —— 사실 나도 제복 때문에 교정직에 발을 들였어요. 36년 전 창원교도소 인근에 살았는데, 한 부부 교정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나란히 출퇴근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였던지 곧바로 교정직에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죠. 입직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창원교도소로 발령을 받았는데, 첫 출근 때 정문 앞에서 당시의 부부 교정공무원을 떠올리며 감격스러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함께 여성 수용동에서 근무하면서 왠지 김 교도와 손발이 잘 맞는다 싶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군요.(웃음)

김지현 교도 —— 저도 교감님과 함께 일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와 비슷한 따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성 수용동 직원들이 각자 임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다과를 나누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셨죠. 그런가 하면 일할 때는 누구보다 깊은 지식과 경험, 노하우로 그야말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교감님 곁에서 교정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복을 입고 활동적으로 일하는
교정공무원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어서 큰 마음먹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출근을 위해 잠옷에서 제복으로
갈아입는 매일이 설레고 행복할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고향인 통영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무척 의미가 깊네요.

김지현 교도

사실 나도 제복 때문에
교정직에 발을 들였어요.
36년 전 창원교도소 인근에 살았는데,
한 부부 교정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나란히 출퇴근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였던지
곧바로 교정직에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죠.

서덕순 교감

보듬을수록 커지는 사명감과 만족감

김지현 교도 —— 기세 좋게 교정공무원이 됐고 두 달 동안 통영구치소에서 만족하며 일하고 있지만, 확실히 수용자를 대하고 수용생활을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용자가 알차게 수용 생활을 하고 나아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서덕순 교감 —— 사람 관리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같은 꽃이라도 각각 생김새와 향기가 다르듯, 사람도 성격이나 취향이 천차만별이죠. 우리는 수용자를 대할 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이 수용자는 이런데 저 수용자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며 수용자를 대하면, 수용자는 금세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엇나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 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대하면 당연히 협조해 주기 싫겠죠. 반면 수용자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장점을 살려 줄 수 있는 맞춤형 수용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수용자도 그 노력을 알아채고 보다 협조적인 언행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법과 규칙을 무시하거나 어긴다면 엄정하게 잘못을 고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평소에 수용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져요. 수용자에게 애정을 갖고 생활을 세심하게 돌봐왔다면 '저 교도관은 나에게 애정이 있어서 잘못을 짚어 주는구나'라며 수긍하고 행동을 고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별것도 아닌데 지적한다면서 투덜대고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수용자들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들어왔기에 기댈 곳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돌을 던져도 이들을 교정교화해야 하는 우리만큼은 그 돌을 온몸으로 막고 수용자가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고 용기를 줘야 해요. 김지현 교도를 포함한 후배 교정공무원들도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교정공무원 생활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자들의 삶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직업적 사명감과 자부심, 일에 대한 만족감도 한층 나아질 겁니다.

새해에도 이어질 선후배의 진한 우정

김지현 교도 ——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교정공무원 생활에 있어 뼈와 살이 되는 값진 조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공로연수도 포기하시고 정년퇴직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서덕순 교감 —— 1년 동안의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현직에서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로연수를 받는 분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나거나 일에 대한 애정이 높아서 이곳에 남아서 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후배 직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지금껏 쌓아 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세심하게 전수해 주는 게 저의 성격과 더 맞는다고 판단했을 뿐이죠. 내년 6월 30일 퇴직인데, 하루 전인 29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제 나름대로 멋지게 교정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새해의 목표예요.

김지현 교도 —— 교감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라서 후배들이야 행복하지만, 정작 교감님이 힘드시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감님이 보여주신 자기관리 능력을 생각하면 후배들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할 것 같긴 합니다.(웃음) 교감님은 어떻게 체력과 건강을 관리해 오셨나요? 이번 기회에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서덕순 교감 ——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운동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구치소를 나서면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아주 좋은 산책로가 출퇴근길로 쓰이잖아요?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고 햇살을 느끼며 그 길을 틈틈이 걷고 뛰는 것만으로도 체력과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김 교도가 오기 며칠 전에 볼링 동호회를 만들었고, 김 교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함께 볼링을 치면서 동료들과 어울리면 개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우리 소의 분위기도 한결 건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만간 또 볼링 치러 가 볼까요?

김지현 교도 —— 안 그래도 볼링의 재미에 빠져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당장 내일 가실까요? 교감님과 함께 볼링 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웃음)

교정교화와 지역사회의 힘찬 동행을 꿈꾸다

통영구치소 교정협의회장 김형길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통영·거제·고성 등 통영구치소 관할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김형길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와 교정시설, 교정교화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봉사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지역사회와 통영구치소 및 교정협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빛난 봉사 열정

김형길 교정협의회장은 지난 2013년 통영구치소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당시 김형길 회장은 통영구치소 교정협의회의 5·6·7대 회장을 역임한 손옥선 고문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교정협의회 활동 소식을 간간이 전하던 손옥선 고문이 어느 날 그에게 통영구치소에서 함께 봉사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사는 시민들은 교정시설과 수용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손옥선 고문님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나아가 함께 활동해 보자고 제안해 주셔서 기꺼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1년여 간 참여위원으로서 통영구치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이듬해 교정위원 위촉을 받았죠.”

남다른 봉사정신과 열정으로 2016년부터 4년 동안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그는 2020년 3월, 제9대 교정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취임식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정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른바 ‘마스크 대란’ 때 전국을 수소문하고 직접 찾아다닌 끝에 통영구치소에서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와 D급 방호복을 구해준 일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워낙 갑작스럽게 퍼지다 보니 초반에는 웃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확진자 동선 확인, 외출 자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시설에 속하는 교도소와 구치소는 방역용품을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심재양 사무국장을 비롯해 여력이 되는 교정위원들과 힘을 합쳐 업체에 연락을 돌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와 방호복을 어렵게 구했고, 부족한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 필요 수량을 확보해 통영구치소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용품을 구하러 다닐 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막상 물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하더군요.”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도모하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용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교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 교정협의회장 활동을 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실감한 김형길 회장은 교정교화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 폭을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가 수용자를 따스하게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교정교화 봉사활동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분들은 ‘죄 지은 사람을 국가에서 먹여 주고 재워 주는데 무슨 봉사가 더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저와 교정협의회는 그런 분들에게 수용자도 출소 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이끌면 대한민국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교정교화 봉사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동참 의지를 보내 주시죠. 덕분에 교정위원 수와 교정교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역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형길 교정협의회장은 성공적인 출소자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교정위원 및 지역단체와 연계해 모범 수용자의 자질을 일찍이 파악하고 출소 후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것. 특히 교정협의회 활동 확대와 교정위원 수 증대를 통해 사회 복귀 의지가 강력한 출소자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이를 건전한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취업 시스템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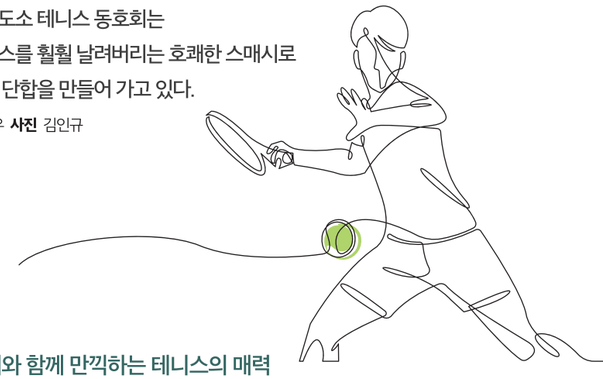
“출소자 사회 복귀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기댈 곳 없는 출소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그들도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정협의회는 통영구치소와 수용자 및 출소자, 지역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면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정교화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단합을 향해 호쾌하게 스매시!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

'팡! 팡!' 일정하면서도 듣기 좋은 타격음이 울려 퍼진다.
소리의 진원지는 인조잔디 코트 2면이
보기 좋게 깔려 있는 홍성교도소 테니스장.
구력 30년 이상의 아마추어 고수부터 3개월 차 '테린이'까지
테니스를 사랑하는 직원 30여 명이 모여 있는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는
스트레스를 훨훨 날려버리는 호쾌한 스매시로
건강한 단합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김인규



동호회와 함께 만끽하는 테니스의 매력

최근 MZ세대가 많이 즐기는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테니스는 그야말로 매력 넘치는 운동이다. 단 두 사람만 모여도 경기를 즐길 수 있고, 테니스 채와 운동화 정도만 갖추면 즐길 수 있어 이른바 '장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 채를 휘두르는 무산소 근육운동과 코트를 이리저리 누비는 유산소 달리기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만에 하나 함께 칠 사람이 없더라도 벽과 함께라면 나 홀로 운동도 가능하다. 여기에 테니스 기량을 높여 줄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이 모든 게 가능하다. '테린이'들을 가르칠 만반의 준비를 마친 구력 10년 이상의 아마추어 고수가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홍성교도소 테니스장에 다가설수록 공을 치는 소리와 초보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이 점점 더 커졌다. "그렇지! 조금 더 자세를 낮추면 좋을 것 같아!" 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총무과 김종호 교감이 이제 갓 테니스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홍수 교위와 김희빈 교도에게 치기 좋도록 공을 건네며 맞춤형 코칭을 전하자, 두 초보의 타구의 질이 금세 좋아졌다. 취재진을 발견한 김종호 교감이 "잠시 휴식합시다!" 외치더니 어느새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 테니스장 참 좋죠? 재작년에 예산을 지원받아 동호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인조잔디 코트 2면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소의 테니스 동호회는 1992년 2월 정식 결성됐는데요. 활동은 1989년부터 시작했고, 1990년부터 2년 동안 비상대기 숙소 옆 공터에 클레이 코트 2면을 일궜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땅을 다지기 위해 근처 횟집의 수조차를 빌려서 바닷물을

공수, 소금 대신 이 땅 위에 고루 뿌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코트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후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교정시설 중 최초로 인조잔디 코트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한 회원 30여 명이 홍성의 맑은 공기를 만끽하며 열심히 코트를 누비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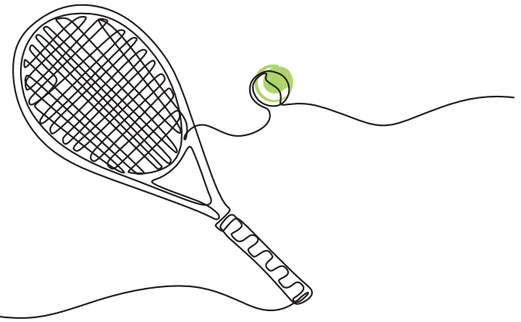
운동과 단합활동을 절묘하게 매칭하다

본연의 설립 목적인 테니스에 집중하기 위해 별다른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는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는 바닷물을 흩뿌리며 테니스장을 일군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테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정기모임과 실력을 점검하는 월례대회는 물론, 법무부장관기, 대전지방교정청장배, 홍성군수배, 보령머드배 등 대내외적인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이제 막 테니스에 가입해 개인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 신입회원들에게는 경력 10년 차 이상 선배들의 무제한 개인 레슨이 제공되며, 동호회 전체의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선수 초청 레슨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특히 테니스는 한 번에 실력이 높아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대신 어느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단식 실력 향상이 가능하죠. 그렇기에 실력이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순간 더더욱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초보의 상당수가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해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동호회는 열정과 실력을 모두 갖춘 선배 회원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테니스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동호회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인 단합도 충실하게 도모하고 있는 것. 운동 후 테니스장 한편에 간이 바비큐장을 마련해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고기와 조개를 구워 먹고, 때때로 가볍게 술을 곁들이기도 한다. 회원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넘기는 맥주 한 모금은 맛보지 않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하고 시원하다는 것이 김종호 교감의 설명이다.

"우리 동호회는 이러한 호사를 다른 동호회도 누릴 수 있도록 족구 동호회 등에 테니스장을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홍성교도소 직원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죠. 물론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신다면 더 큰 만족감을 드릴 자신이 있으니, 언제든 저와 총무인 복지과 김호석 운전주사보에게 문의 주세요. 성심성의껏 즐거운 테니스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웃음)"



테니스는 우리의 '인생 운동'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은 테니스를 치며 체력 증진, 다이어트, 팀워크 향상 등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김호석 운전주사보는 몸에 가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운동 효과가 뛰어난 테니스 덕분에 최근 몸무게를 7kg 감량했다. 복지과 권철순 운전서기보는 다수의 경기가 펼쳐지는 한 대회를 너끈히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체력이 높아졌으며, 덕분에 업무 효율과 일상 속 활력도 함께 향상됐다. 구력 15년을 자랑하는 보안과 임재은 교감은 테니스 동호회 가입 후 한결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변했고, 소 내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져 업무 스트레스가 줄었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 때문일까. 김종호 교감은 한 치 망설임 없이 "테니스 동호회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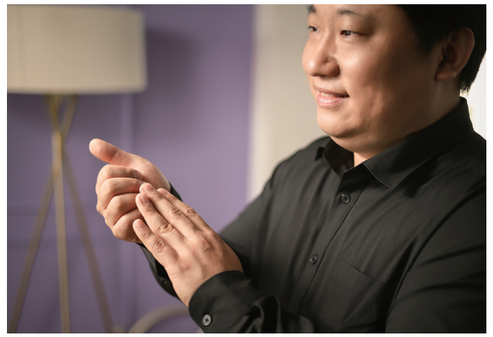
"테니스를 치다 보면 코트 안에서 희로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이 내 의도대로 넘어갔을 때, 채와 공이 정확하게 만났다고 느꼈을 때는 짜릿한 쾌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처럼 향상되지 않는 테니스 실력에 화가 나고 슬픔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 순간을 끈기 있게 넘어가고 나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 발전했다는 남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죠. 요약하자면 테니스장 안에서 다채로운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곧 일상의 평안과 활력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테니스 동호회장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테니스를 '인생 운동'으로 추천하는 이유죠."

요즘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테니스장 실외 조명을 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테니스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간에 삼삼오오 모여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각자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니스 클럽에 함께 다니며 꾸준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 이렇듯 활발하게 활동하는 홍성교도소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면 테니스에 도전해 봐도 좋지 않을까?'

> "
>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특히 테니스는
> 한 번에 실력이 높아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 대신 어느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다음 단계로
> 넘어가는 계단식 실력 향상이 가능하죠.
> 그렇기에 실력이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순간
> 더더욱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 운동이 바로 테니스입니다.
> "

손으로 완성하는 언어
수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 홍성호
& 수어통역사 신명순



배움은 몰입을 이끌고 사유를 확장시킨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안과 홍성호 교도가
평소 관심을 기울이던 수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신명순 수어통역사를 만나
수어의 '한 수'를 익힌 풍경을 담았다.

글 김주희 **사진** 홍승진

지루한 일상을 저격하다

수어는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한 언어다. 아직까지 수화로 부르는 사람이 많지만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국어와 동등한 언어인 수어로 불리는 중이다. 수어는 목소리 대신 손동작 외에도 몸짓, 표정 등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독립적인 언어다. TV 속 뉴스 앵커가 내용을 전달할 때 화면의 오른쪽 아래 수어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수어통역사다. 홍성호 교도는 수어통역사를 만나 수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참이다.

"TV나 유튜브 등에서 수어통역가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가에게 묻다'를 기회로 입문자에게 필요한 기초를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평소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등을 자주 사용하면서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수어를 열심히 배워서 훗날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로 활약할 이는 신명순 수어통역사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수어통역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20년 넘게 수어를 해온 베테랑이다.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장애에 맞춘 편의시설이나 보조기기 등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가 점자라면, 수어는 청각장애인이 세상과 연결하는 시각 언어입니다."

홍성호 교도는 신명순 수어통역사에게 질문을 하나하나 이어가고, 간단한 수어를 배우는 등 수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Q 수어통역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대학교 1학년 때 수어동아리를 통해 처음 접했어요. 당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던 터라 수어를 익히면 훗날 업무와 연계해 도움이 될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 후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수어를 사용했고, 국가공인 수화통역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Q 입문자가 처음 수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요.

A 수어 클래스는 보통 단어를 배우는 기초반에서 시작해 단어를 활용하는 중급반, 통역의 기초를 익히는 고급반,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통역사시험대비반까지 구성돼 있는데요. 좋아하는 분야와 연계해 시작한다면 실력이 더욱 빨리 늘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악을 좋아한다면, 가사에 맞춰 수어를 구사해도 좋습니다. 공연을 좋아한다면 극본의 일부를 수어로 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죠. 자신의 관심사와 접목해 수어를 익힌다면 더욱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청각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어로 진행되는 미사나 예배 등에 참여하면서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Q 수어를 배우는 과정과 활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청각장애인은 개개인별로, 연령대별로 수어 구사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농아인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문맹률이 높습니다. 비장애인이 문장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Q 수어를 구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2명 이상이 함께 있을 경우, 비장애인들끼리 대화할 때도 수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귓속말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보 전달이 잘 안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면 정보 전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수어를 꾸준히 배우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한국농아인협회의 각 시도협회와 시군지회에서 수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 전국적으로 6곳이 있는데, 경북에는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기별로 수어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각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 방법이지만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에
>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어로
> 진행되는 미사나 예배 등에 참여하면서
>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기회를
>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MINI INTERVIEW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 홍성호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어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이 단계별로 그려진 계기가 됐습니다."

MINI INTERVIEW

수어통역사
신명순

"수어는 청각장애인과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장애인이 수어를 배우는 것이 흔치 않은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으로
청각장애인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겨울 댄디룩

코지한 브라운 컬러의 더블 버튼 울 코트와 함께 아이보리 니트, 그레이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다크 그레이 팬츠로 무게감을 준 스타일링. 톤을 맞춘 클래식한 슈즈로 댄디함을 더했다.

한 번쯤 카메라 앞에서
멋진 패션왕처럼 '찰칵'

평범한 일과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거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하루하루 비슷하게 돌아가던 권혁진 교위의 일상에, '나도 패션왕'이라는 작은 도전이 찾아왔다.

글 정라희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 **'나도 패션왕' 촬영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맞는 옷 구하느라 스타일리스트 분이 힘드시겠다' 같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든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익숙한 스타일은 잠시 안녕, 새로운 도전으로 기분 업

익숙하다는 이유로 손이 자주 가는 옷이 있다. 권혁진 교위 역시 마찬가지다. 야구점퍼와 야구모자, 야구티셔츠 등 편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혼 남성이 그렇듯 최근에는 아내가 골라온 옷을 주로 입는 편이다.

"'나도 패션왕' 촬영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맞는 옷 구하느라 스타일리스트 분이 힘드시겠다' 같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든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2008년 1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임용돼 여주교도소를 거쳐 2011년 교사로 승진하며 원주교도소로 오게 됐다는 권혁진 교위. 이후로는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 딸과 함께 원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도 귀여운 딸이 동행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시험이 겹쳐 나중에 화보를 보여주기로 했다.

"딸이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웃는 걸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권혁진 교위가 '나도 패션왕'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영월교도소 김승현 교감의 추천이 컸다. 김승현 교감과는 원주교도소 보안과 고충처리팀과 총무과에서 함께 근무하며 오랫동안 정을 쌓은 사이다.

"김승현 교감님은 업무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을 때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이모저모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승진 후 다른 곳으로 가서서 아쉬웠는데,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람을 찾으며 일하다

권혁진 교위는 원주교도소에서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봉급과 정보공개,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직원과 수용자, 민원인을 모두 상대하는 몇 안 되는 보직이다.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이의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생긴다. 하지만 그는 문의에 답하거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면서 그 자신이 원주교도소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이 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원주교도소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경비처우급 S3, S4급 수용자를 주로 수용하고 있어 서울지방교정청 안에서도 업무가 쉽지 않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마음을 합해 잘 꾸려가고 있죠. 또 다른 기관보다 젊은 직원 비율이 높아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합니다. 캠핑 동호회, 반려동물 동호회, 음악 동호회처럼 독특한 동호회도 여럿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 원주로 온 직원이든 원래 원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처럼 잘 적응할 수 있게 모든 직원이 따뜻하게 도움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가 교정공무원에 된 데에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그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로부터 '교정학'을 처음 접했다.

"당시 아내가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경기대학교 교정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처음 들어보는 학과여서 처음에는 치과와 관련한 곳인 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웃음) 아내가 '범죄자를 바른길로 인도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관심이 갔고, 데이트하면서 가끔 학교에 들렀을 때 교정학 관련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어요. 은근히 매력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바에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 저도 교정학과에 편입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교정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죠."

처음 교정직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강인한 이미지가 그에게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첫 발령 후 기동순찰팀에서 접한 교도관의 권위는 강한 행동이 아닌 위임된 권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상담자의 덕목도 교도관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모던한 스튜디오에서 모델처럼 포즈 잡기

한편으로 교정공무원으로서 권혁진 교위의 목표는 '진정한 교도관'이 되는 것이다. 어렵지만 이상적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전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왔다. 고충처리팀에서 근무할 때는 송무와 인권 담당을 맡아 법정에도 나가보는 등 업무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경험도 해왔다.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지금도 직원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빠르게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촬영 역시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평소 즐겨 입는 캐주얼을 중심으로 기존에 시도해 보지 않은 컬러와 코디를 시도하고, 단정한 느낌이 나는 캐주얼 정장도 입어본다.

"깔끔하게 하얀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러자니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아 '로망'으로만 남겨두고 있지만요. 덩치가 있는 편이어서 코디를 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옷 색깔을 다르게 선택하거나, 코트만 입어도 한결 인상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웨딩촬영 이후 본격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잡아보는 것은 무척 오랜만이라는 권혁진 교위. 초반에는 어색한 듯 미소를 짓지만, 차츰차츰 촬영이 이어질수록 자연스레 모델 포즈가 나온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들과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즐거움이 있네요.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항상 I가 나오는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망설임도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인생에 남을 만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조금은 꿈같은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체력 단련에 집중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동료들과 함께 '몸짱 달력'을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돕는 일에 동참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원주에서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폿을 알려주세요.

"원주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800년 된 천연기념물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여서 가을에 들르면 특히 좋습니다.
광고와 드라마에서 자주 소개된 문화명소인 '뮤지엄 산'도 원주에 있으니 시간 나실 때 원주에서 인생 샷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릿 패션

독특한 벨벳 터치감의 진 브라운 숏 패딩과 베이지 후드, 청바지, 베이지 스니커즈로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을 전달하며, 한겨울에도 따뜻하면서 활동성이 좋도록 스타일링 했다.

참회와 반성의 마음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글 김○○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인출 모집책으로 구형 4년에 실형 2년 6월을 받은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2020년 ○○구치소에서 본소인 ○○교도소로 이송된지도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구속 당시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한없이 죄송해서 화장실 한편에 앉아 세수하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란 범죄를 보며 '살면서 저런 범죄를 당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유흥과 돈맛에 빠져들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이들께 해를 끼치는 악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자만심이 결국은 저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치소에 발을 딛고, 제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곧 현실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구속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독거실에 2주간 격리돼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쾌쾌한 냄새, 모포 2장, 식판, 수저 오로지 이게 끝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재판 선고 날이 어김없이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고의 결과로 공범은 2년, 저는 2년 6개월이란 선고가 떨어지고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선고 후 한 달 뒤, 저는 바로 교도소로 이감 조치됐습니다. 저는 제가 벌인 잘못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자동차정비' 직업훈련까지 순탄하게 합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업훈련 이송이 미뤄지다 어렵사리 ○○교도소에 입감하게 되고, 그렇게 제 징역길은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피해자분들과 저로 인해 같이 옥살이 하는 것 같은 가족들에게 참회의 반성과 목표 없이 여차저차 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었는지 저는 직업훈련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본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마음의 인생은 위태로운 방향의 길뿐이란 것을 그 순간부터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 진심으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고 조금씩 노력하다보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나 자신만이 바뀌는 것일 뿐 저로 인해 생긴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또한, 허리 협착증에 대장암까지 겹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에 한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현재 저는 몇 개월 후 사회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분들과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와 피해자분들에게 꼭 이 말 한마디는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와 슬픔, 괴로움…. 가능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가 다 짊어지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일으킨 범죄는 돌이킬 수 없겠지만 곧 사회 복귀를 잘 준비해서 저로 인해 일상과 감정,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뒤틀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제자리로 원만히 돌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글이 참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줬고, 지금 현재 저는 모두를 위한 도약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 저의 가족들 못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자유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배우는 공간

글 천안교도소 대체복무요원 김형근

저는 2021년 2월 15일 자로 대체복무에 소집돼 대전에서 3주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천안교도소'로 배치됐습니다. 교도소 내로 처음 진입했을 때, 이곳은 역시나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부서는 일명 '구내 청소'와 '환경 정비'로 불리는 부서였습니다. '구내 청소' 부서는 교도소 내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해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 번은 부서 업무 파악을 위해 실습을 나갔는데, 능숙하게 움직이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원들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저희는 점점 발전해 매일 나오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일사천리로 수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내 청소의 업무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구내 청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초기'와 '조경' 업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초기를 잡아 본적도 없던 저는 또 한 번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에 대원들과 함께 보호구를 착용하고 어설픈 예초 작업을 수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의 대원들은 모두 베테랑이 됐습니다. 대원들은 소내의 풀이 있는 구역들을 찾아가 풀들의 더위를 식혀준다는 생각으로 시원하게 깎아줬습니다.

물론, 예초기 돌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무거운 예초기를 이끌고 몸을 움직이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한다'는 말을 해주시며 지나가시는 직원분들의 따뜻함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더불어 저와 대원들은 교도소 내의 미관을 책임지고 있다는 확실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대원들에게 주어진 원칙과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대체복무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낯설게 느껴졌던 교도소는 이제 저의 일터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교정시설이란 곳의 인식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딱딱한 모습 이면에 부드러운 모습도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점들 또한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에는 대원들이 대체복무를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팀에서 복무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필요를 돌보기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직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대원들에게 주어진 원칙과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교도소 내에는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직원분들에게 이 기회를 비롯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정시설이라는 환경에서 대체복무하게 된 것을 특별한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들이 유용한 자원이자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을 다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복무하기를 바라며, 또 이 기간 동안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빛낼 빛의 명소

반짝반짝 빛나는 두근두근 설레는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 아쉬워서 혹은 그리워서.
어느 쪽이건 뒤돌아보는 시간은 사람을 자주 멈칫거리게 한다. 그래서일까.
누군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앞만 보고 걷기를 주문하고, '지나간 시간은 애써 잊자' 권한다.
모퉁이가 없는 삶은 없다. 삶에서 모퉁이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어쩌면 연말은 직선으로만 흐르던 시간이 한 굽이 꺾여 돌아가는 시간의 모퉁이가 아닐지.
그 모퉁이가 반짝반짝 빛난다면 지난 시간이 한결 포근할 테다.
눈부신 그 빛의 모퉁이로 떠나보자.

글. 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오후 5시, 빛에 빠져들 시간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이 무렵 아침고요수목원은 '빛의 정원'이다. 13만㎡ 규모의 정원이 온통 조명으로 반짝거려 휘황하다. 더욱이 이곳은 본래 있던 정원을 밑그림 삼아 그린 오색의 빛 세계. 크고 작은 수목과 화단, 산책로 등이 빨갛고 파란 별빛으로 고저장단을 이루며 별처럼 흩뿌려진다. 심지어 그 빛들은 땅에 그린 그림인 듯 제 형태대로 도드라져 환하다. 특히 능수버들 동그랗게 늘어진 가지가 돋보인다. 봄날 연둣빛으로 치렁치렁 늘어졌던 가지가 주황빛으로 쭉쭉 쏟아져 내려, 그 아래 서면 마치 유성 쇼가 펼쳐지는 듯 화려하다. 잠시 그 아래 벤치에 앉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자. 슬펐던 일은 가슴에 묻고, 기뻤던 일은 회상하며 한 번 더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내일의 나'는 이처럼 빛날 것이란 희망도 가져보면 좋겠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점등시간도 챙겨볼 일이다. 이곳에선 매일 오후 5시 조명이 켜진다. 추천 감상 지점은 하경정원 전망대. 수목원을 통틀어 가장 빼어난 풍경을 선보이는 하경정원이 '전등 켜지듯' 발아래서 툭 켜지는 자리다. 이토록 화려한 정원이 어디에 또 있을까 싶도록 빛들의 잔치가 현란하다. 울창한 낙엽송 길 끝자락에 있는 달빛정원도 필수 감상 포인트다. 그곳 어디쯤에서 펄펄 내리는 함박눈을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다.

로맨틱 동화마을, 쁘띠프랑스

어린왕자를 테마로 한 곳으로, 밤이면 건물 전체가 환해진다. 채도 높은 6동의 건물을 프랑스 산 LED 조명으로 꾸며 반짝반짝 빛나게 한 것. 설치한 조명 대부분이 크고 화려한 공중조명이라 한층 로맨틱하다. 일테면 별빛 모양의 대형 그물 조명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거나, 형형색색의 커다란 전구들이 하늘에 둥실 뜬 형태다. 그래서일까, 공간 전체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동화책 같다.

하늘도 강도 억새도 도시도 붉더라

서울 하늘공원

세밑이면 늘 '먼 곳'의 낙조가 궁금했다. 아니, 해 지는 풍경 안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계획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해로 남해로 분주하게 다녔다. 하지만 서울에도 제법 멋진 낙조 여행지가 있다. 하늘공원이다. 서울이란 도시 안에 있으니 '먼 길'일 턱이 없고, 그 풍경 또한 '먼 곳'에 뒤지지 않으니 안성맞춤이다.

상상해 보시라. 하늘과 맞닿은 듯 땅과 하늘이 서로 입술을 맞대고 있는 하늘공원의 일몰 풍광을. 그 땅을 무성하게 채운 억새는 저녁마다 햇살을 품은 화톳불이 되고, 도시를 혈관처럼 흐르는 한강은 그보다 더 붉은 얼굴인 채로 도시를 흐른다. 여기에 한강 가로는 맞춤한 듯 어화(漁火)를 닮은 불빛이 날마다 수만 가지 색으로 솟으니, 말 그대로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는 '삽시간의 황홀'이다. 어디 '먼 곳'과는 견주기 힘든 마력의 풍경. 그러니 올겨울엔 '먼 곳' 대신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공원부터 찾아보자. 찾아 일상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는 그 황홀감에 젖어볼 일이다.

낙조 감상 포인트는 하늘공원의 제1전망대인 '하늘을 담는 그릇'과 난지캠핑장이 바로 보이는 서남쪽 전망대. 억새와 도시의 불빛과 한강이 어울려 빚어내는 일몰 풍광은 전국에서 오직 한 곳 하늘공원만의 것이니, 부디 그 감동을 누리시라.

이곳은 석유탱크인가 문화공간인가, 문화비축기지

하늘공원에서 1.4km 거리에 있다. 원래 석유비축기지였던 곳으로, 지난 2002년 폐쇄되면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석유 대신 문화가 가득 찬다'는 뜻으로, 5개의 석유탱크 그대로가 T1~T5까지의 문화공간이 됐다. 이 중 T5는 석유비축기지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문화비축기지의 시작을 보여준다. T2는 하늘이 뻥 뚫린 야외공연장이 됐으며, T1은 하늘이 보이는 화사한 파빌리온이 됐다.

그래, 강은 끝에서 짙붉은 바다를 만나지

부산 다대포

강은 늘 끝에서 바다를 만난다. 부산은 낙동강 유장한 물줄기가 1,300리를 겨우겨우 흘러 바다를 만나는 곳이다. 그 끝에 한 점 꽃처럼 핀 곳이 몰운대고 다대포다. 몰운대는 원래 섬이었지만 모래톱이 쌓이며 육지와 붙어 뭍이 된 곳. 다대포는 그 곁으로 넓게 모래밭이 만들어지며 형성된 해변이다. 굳이 연말에 이곳을 찾으시라 권하는 이유는 일몰 때문이다.

다대포를 붉게 물들이는 일몰은 '외로움도 눈부실 수 있다는 것'(권정일의 〈몰운대〉 중에서)을 새삼 깨닫게 한다. 어쩌면 사는 동안 도시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모퉁이, 그 언저리 모래밭에 머무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다대포에서는 그 외로움의 시간 위로 해가 지고 해가 뜬다. 일몰과 일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덕분에 연말과 새해를 연속하는 시간 속에서 맞을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바다의 무언가가 문득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땐 주저 말고 다대포의 모래해변에 서 보시라. 백사장을 붉은 노을로 물들인 일몰에 반할 테니 말이다. 우유니소금사막처럼 말개 온 하늘을 다 껴안는 모래밭에 서서, 바다인 듯 강인 듯한 풍경을 오래오래 바라보아도 좋을 일이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 따뜻한 에너지를 충천할 수 있을 테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뜨끈한 돼지국밥

겨울철 부산에서는 돼지국밥이 필수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확 풀어주는 매력이 있다. 진한 돼지 뼈 육수에 돼지 수육을 넣고 다진 양념과 새우젓을 더해 끓인 뒤 밥을 말아 먹는 돼지국밥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다. 6.25전쟁 중 피난민들이 비교적 구하기 쉬운 돼지 부산물로 설렁탕을 끓여 먹은 것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동구 범일동과 진구 부전동의 서면 등지에 돼지국밥 골목이 형성돼 있다.

상담이 필요해? 오은영 박사 전성시대의 명과 암

쏟아지는 오은영 박사 상담 프로그램, 어떻게 봐야할까

바야흐로 오은영 박사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종편에서부터 지상파까지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상담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었다.
무엇이 이런 전성시대를 만들었고,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 있을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 채널A

다시 도래한 오은영 박사 전성시대

오은영 박사 방송가에서 이름을 알린 건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였다. 도무지 부모 입장에서 통제가 어려운 아이가 신기하게도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통해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프로그램.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 잠시 방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오은영 박사는 지난 2020년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로 화려한 복귀 신고를 했다. 관찰카메라로 '금쪽이'들이 처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 솔루션을 주는 오은영 박사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다. 특히 육아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던 차에 이 프로그램과 함께 오은영 박사에 대한 주목도는 훨씬 높아졌다.

그 후로 오은영 박사는 상담 영역을 육아에서 부부, 청년, 가족 관계 문제 등등으로 넓혀나갔다. SBS <써클하우스>에서 청춘들을 위한 상담을 했고, MBC <다큐플렉스>에서 한 아이템으로 시도했던 <오은영 리포트>는 '결혼지옥'이라는 부제를 달고 10회 분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더니, 이제 정규 방송으로 자리했다. 또 종영했지만 KBS <오케이? 오케이!>는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출장 상담'을 시도하기도 했다. 육아 전문가로 시작했던 오은영 박사는 이제 모든 영역을 상담하는 '국민 멘토'로 떠올랐다.

오은영 박사가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민 멘토가 된 데는 갈수록 쉽지 않아진 삶이 한몫을 차지했다.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시대까지 겹치며, 청년들은 취업 문제에, 워킹맘들은 육아 문제에, 또 부부와 가족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갈등들이 첨예해졌다. 이런 문제들에 위로를 주고 때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갈증이 커졌다. 오은영 박사는 때론 예리하고 냉철한 분석으로 아파도 직시해야 할 것들을 직시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 또한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따뜻한 솔루션으로 이러한 갈증을 채워줬다. 이건 전문적인 역량만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했다. 오은영 박사는 이 두 역량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다. 오은영 박사 전성시대가 열린 이유다.

© 채널A

쏟아지는 오은영 프로그램이 만든 피로감

하지만 오은영 박사를 세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급증하면서 시청자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이러한 반응은 방송인 혹은 연예인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다. 제아무리 재밌어도 여기저기 비슷비슷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해당 출연자의 소비가 빨라지고 그만큼 식상해지기 마련이다. 지상파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오은영 박사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 또 그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육아나 부부 갈등 관련 내용들은 여전히 새로운 내용도 많고 깊이 있는 분석과 솔루션이 가능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어딘가 약한 면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오케이? 오케이!>는 대국민 출장 상담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즉석에서 만나 바로 내놓는 솔루션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개월 만에 12회를 마지막으로 종영됐다. <써클 하우스>도 마찬가지였다. 애초 10부작으로 편성해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의 역할은 다소 애매했다. 청춘이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오은영 박사의 상담으로 풀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작'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은영 박사를 국민 멘토에서 자꾸 '방송인'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지점이다. 오은영 박사도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생활인이 맞지만 '방송 욕심'으로 비치기 시작하면 상담의 진정성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겨난다.

과연 효과는 있나, 부작용은 없을까

또한 과연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었다.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은 결국 특정 사례를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즉 상담이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각각의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은 그 사례의 솔루션일 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부분을 착각해 자신의 상황을 투영하고 그 솔루션을 받는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 그 이상의 효과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문제라기보다는 방송이 갖는 한계라고 봐야 한다. 다만 방송에 그 이상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과몰입하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 상당수가 취하고 있는 사생활 공개 부분이다. 관찰 카메라가 일상화된 요즘이지만,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들 속에 등장하는 관찰 영상은 출연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담기기 마련이다. 그래야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솔루션의 필요성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선을 넘지 않는 균형 잡힌 관찰 카메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 속에서 때론 관찰 영상의 자극성이 상담 프로그램을 압도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

즉 자극적인 관찰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 일종의 포장으로서 상담을 넣는 듯한 본말의 전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의 사생활이 그 치부까지 드러내게 되면 그건 출연자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솔루션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를 소재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서 과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부모가 요청해 방송을 하고 솔루션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인격권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방송들이 앞다퉈 특정 인물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사회적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오은영 박사를 대중들이 '국민 멘토'로 소환한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진 심리적 어려움들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방송이 주는 위로만큼 결코 작지 않은 부작용들을 들여다봐야 할 때다.

© MBC

© SBS

가석방제도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수형자와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②

목차

Ⅰ. 서 론
Ⅱ.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최근의 제도변화
Ⅲ. 분석자료
Ⅳ. 수형자와 담당 교도관이 인식한 가석방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윤 옥 경*

*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okyoon@kgu.ac.kr)

Ⅳ. 수형자와 담당 교도관이 인식한 가석방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3)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고통

최근에 교정당국에서는 일선 교정기관 사이의 가석방자 선정의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더 많은 수형자들에게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에 부합하는 수형자들은 모두 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수형자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상당한 후유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의견이 수형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가석방 관련 제도가 좀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가석방 인터뷰 하면 2~4명 정도만 탈락했는데, 지금은 30명 이상, 30~40% 정도를 탈락시키고 있다. 내 주위에만 봐도 올해만 벌써 세 번이상 탈락한 사람이 꽤 되는데, 매번 집에 연락하고 옷 보내라고 하고 잔뜩 기대하게 하고 떨어지면 정신적 충격이 커서 수용생활이 힘들게 되어 주변사람들도 피곤해진다.

최근 들어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의 탈락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4번씩이나 탈락되는 수형자도 있는데 수형자 본인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고 오히려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할 수 있는 시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수형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수형자들이 갖는 불만이고 어려움입니다.

필요적 가석방은 수용자를 두 번 죽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100%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가석방 제도는 한마디로 희망고문입니다. 무슨 로또 복권처럼 당첨되면 나가고 떨어지면 2달을 또 기다려야 되고 처음에 나갈 줄 알고 기다렸던 가족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한 번 탈락되면 수용자 본인도 다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꼭 나갈 수 있는 대상자만 선정하여 더 이상 희망고문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가석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

가석방 관련 기준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수용자들에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자기가 가석방이 가능한 지 여부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가석방 %가 결정된다는 등의 내용은 사람들이 매번 물어봐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수용자가 문의하지 않은 한 조건, 자격, 심사대상 등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직원들조차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석방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면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 모르니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들에게 가석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석방이 가능한 시기를 미리 알려줬으면 한다.

가석방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범위 등의 정보 자체가 당사자인 수용자들에게 전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 수용자 본인들에게 가석방에 대한 기준이나 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가 이루어져 답답한 마음이나 수용자들 사이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석방에 대해 모두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석방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에는 차이가 있어 수용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용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석방 혜택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여 출소 후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화방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형기에 최소, 최대의 %를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1범은 20%, 2범은 10% 등 관용부 출역 +3%, 부양 가족 +2% 등등 구체적인 매뉴얼이란 게 있으면 생활하는데 답답하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자 중에서 자신이 가석방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직원에게 면담 요청을 해도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다. 매일 카더라 통신으로 듣는 개헛소리에 다들 머리만 아프다. 제대로 된 정보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석방 제도나 기준, 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절차와 내용 등을 수용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가 빈약한 수형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체계화된 가석방 기준을 설명해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마저 괜히 그랬구나하고 오히려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는 확실히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석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100명중 1.2명 정도 된다. 그 이유는 가석방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받아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조건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는 잔여 형기 30%, 누구는 약 10% 등 그때 그때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필자 생각은 기본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등이 없고 직원들이 이에 대한 전파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비치 요함.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수형자들이 가석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배포된 정보라기보다는 주변의 몇몇 사례에 기초해서 짐작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카더라 통신"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공식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가석방지침을 보면 신입 분류심사 때나 가석방 상담 시에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시점에 대해 고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일선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서 가석방에 대한 공식절차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비치한다거나 가석방 관련해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형자의 지적도 제도개선 내용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5) 가석방 예비회의 출석 진술에 대한 요구

가석방 심사 할 때 가석방 대상자도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석방 심사 할 때 본인에게 향후 계획을 말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석방의 심사 시 개인 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가석방 대상자일 경우 교도소 내 자체 가석방 심의위원이 1차 평가 심사 후 걸러진 인원에 대해서 본청에 가석방 대상자를 상정하는데, 이 가운데 1차 평가 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심의 위원들 앞에서 자신이 가석방을 받아야 하는 동기, 이유 등을 피력해서 서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향후 수형자가 가석방 받아서 출소 후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삶을 얘기를 들어 주기를 요청하고 당부 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 중에 심사 시 자신들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있다. 가석방 업무지침상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지금까지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매월 심사건수가 많은 대형 교정시설에서는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을 염려하고, 직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서류가 말해주는 부분이 많으며, 오히려 직접 출석이 공정한 심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에 국한해서라도 직접 진술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6]

6)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 고지

수형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가석방 예비심사 또는 중앙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 결정이 난 경우 왜 부적격으로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 한편 담당 직원들의 심층질문지 답변에 의하면 일부 직원들은 탈락 이후 상담요청이 쇄도하고 수형자 가족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느라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장기수의 경우 수차례의 가석방 상신이 있음에도 연속해서 탈락이 되는 예가 있는데, 본인의 탈락 이유를 모르다보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과 내지는 위원들 앞에서 본인의 현재를 어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 한다.

수용자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탈락하게 된 건 지 자세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 자체가 많은 노력과 심사를 거치는 과정인데 현재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가석방 탈락한 이유와 면담을 통하여 알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애매모호한 답변들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⑥ 영국의 경우 가석방위원회 개최 시 구술청문과 서면청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구술청문의 대상은 수형자 본인 뿐 아니라 수형자를 잘 아는 관계인도 포함된다. (김정연외, 2019: 155-156)

가석방 심사 시 떨어졌을 때 무슨 사유인지 수용자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 곳 수용생활만 착실히 하고 가석방 심사를 해서 법무부 교정위원회에 올리면 가석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희 수용자들은 그렇게 알고 착실하게 수용생활을 하였지만 많은 수용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가석방에서 제외되고 석방되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탈락한 가석방자에게 어떤 이유로 탈락되었는지 원인을 설명해주기 바람.

2. 가석방 업무 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1)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가석방 관련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체감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가석방이 수형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항이라 '실수가 표면화 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필요적 가석방과 조건부 가석방, 그리고 당월 가석방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의견, 또 가석방을 권리로 생각하는 수형자를 설득해야 하는 업무특성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가석방 업무는 수용기록의 사면업무와 동일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발견하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나, 실수가 표면화 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재량의 여지가 커서 판단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석방업무가 분류심사과에서 3D 업무로 인식된 지는 오래전이지만 최근에 필요적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당월가석방 등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업무 강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요적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당월 가석방 등 정기, 기념일 가석방 이외에 가석방 신청종류의 다변화와 신청 기준율의 차이, 가석방 허가와의 괴리 등으로 신청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업무상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최근 필요적, 취업조건부, 당월 가석방이 실시되어 업무 강도는 늘어났는데 그에 비한 인원 충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가석방 전산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스템 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기존 해오던 한글, 엑셀 등으로 가석방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보라미 전산시스템에도 입력을 하여야 해서 이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수형자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많은 상담 의뢰가 오고 있어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형자 상담과 수형자 가족들의 민원에도 응대를 해야 돼서 애로가 많음.

가석방을 권리로 착각하는 수형자와 이를 설득해야 하는 담당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석방을 일정 집행률만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그로 인한 수형자와 가족의 상담수요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나 인원 증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석방이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종류가 너무 많음, 기준율 통일 등)

가석방제도 확대로 가석방담당자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원보충의 어려움이 있어 지원근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석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류심사과의 정원을 적정하게 늘려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필요적 가석방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무부담

필요적 가석방 제도는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요적 가석방제도는 형 집행률이 일정 선에 이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의 수를 늘이고, 일선 교도소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2019년 초부터 도입된 이 제도가 일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제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가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수형자들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을 질문하였다.
필요적 가석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제로 가석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청서류 준비 업무는 증대하고 가석방 신청자 대비 허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번 신청 탈락하는 수형자들이 나오면서 '희망고문'을 호소하는 수형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교도소별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수형자의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석방예비회의 시 심사숙고하여 모든 조건을 사전 검토한 다음 신청하는 관계로 허가율이 95%에 근접하였으나 필요적 가석방의 시행으로 탈락시킬 명분이 없으며, 때가 되면 당연히 신청해 주는 것으로 수형자들이 인식하게 되어 회의가 하나의 요식 행위가 되어 가고 있음. 필요적 가석방의 경우 너무나 일찍 신청하게 되어 3번 이상 탈락되는 경우, 좌절감으로 인해 오히려 갱생의욕을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됨

본부에서 가석방 허가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적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전국 석방 업무 담당자 집합교육 시 얘기를 했고 실제로 허가율이 90프로 대에서 70프로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허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형자들을 필요적으로 계속 신청하고 계속 탈락하는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청률 대비 허가율에 변화가 상당합니다.

필요적 가석방은 허가율을 낮추기 위함과 가석방 담당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석방을 늦게 신청하는 수형자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전혀 일선기관의 의견과 동떨어진 성과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일선기관의 업무과중과 수형자들의 수용관리에 악영향만을 끼칠 뿐 필요적 가석방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가석방 출소 수형자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필요적 가석방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가석방심사 및 가석방확대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도로 가석방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형자에 비해 행정력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담당자의 업무량은 상당부분 늘어났지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의 교정기관별 편차 및 가석방 허가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많이 완화되었음.

3) 가석방 제도에 대한 여론의 영향

범죄자들이 가석방 등으로 인해 조기에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염려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가석방 결정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직원들은 성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불허, 음주운전에 대한 가석방 제한 등이 최근의 범죄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결정의 사례라고 제시해 주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대로 이리 저리로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사형집행도 이루어져야하고, 수용자 인권을 경시해도 되나 머... 그런 문제들이 생길 듯합니다.

재범가능성은 여론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나, 가석방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세부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여론의 영향은 크다고 봄. 성관련 범죄 외에도 최근 음주사범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준 경우가 있음. 여론에 따라 매달 기준이 바뀐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의 경우는 국민여론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봄.

윤창호 법 관련한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심사기준이 개선되거나, 성 범죄자, 보이스 피싱에 대한 기준율이 높은 이유 등은 어느 정도 여론의 방향을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가석방 자체가 국가의 은혜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내려지는 보상이므로 여론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는 정도의 여론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을 의식하여 기존의 규정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가석방이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죄질이나 범죄경력에서 더 '나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나가는 반면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가석방이 안 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적절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사범별 요건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개별 수형자의 특성(교화정도 등)을 제대로 반영한 가석방 결정이 필요하다.

어린 성범죄자들은 가석방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정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혜택(중간처우, 귀휴 등)에서 제외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가석방 가능의 이유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초범 성범죄 수형자들은 가석방 혜택이 전혀 없는데, S3/R3에 범수는 4범, 징벌전력도 있는 수형자가 가석방 혜택을 받고 나가는 걸 보면 씁쓸합니다.

4) 가석방 심사 시 충분한 논의 여부

일선에서의 가석방 예비회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가려내는 결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 수형자들은 가석방예비회의가 자신들의 사례를 얼마나 진지하고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회의가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담당직원에게 질문하였는데 일반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수형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자료를 놓고 긴 시간 고민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비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담당직원이 사전에 분류해 놓은 적격, 부적격, 신중검토자에 대해 검토하는데 가석방 신청자가 적은 교도소와 대형 교도소의 차이는 크다. 그리고 필요적 가석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필요적 조건을 충족시킨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없이 중앙 가석방심사위원회로 올리게 되어 있으므로 긴 논의가 사실상 필요 없다고 한다.

가석방 예비회의 개최하는 날에 간사가 가석방예비대상자들 중 적격대상자들에 대하여 한명씩 설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신중검토 대상자를 설명한 후 결정하고, 부적격 대상자를 설명한 후 결정하고 있어 가석방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추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장기수형자의 경우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반수형자들의 경우 필요적 가석방 신청제도 도입이후에는 논의할 필요 없음. 필요적 가석방에서 제외되는 일반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집행률 - 잔형일수 1~2개월 정도 - 에서 신청될 수밖에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크게 요하지는 않음.

제한된 시간에 여러 수형자를 검토해야 하므로 밀도 있는 논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격, 부적격이 명확한 경우보다는 검토가 필요한 수형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심도 있는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지는 경향이 있음.

5)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출석 진술의 필요성

수형자들은 가석방예비회의에 자신들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가석방 업무지침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가석방예비회의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일선의 가석방 예비회의에서 수형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출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직원들은 수형자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공정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에 와서 자신이 가석방에 적격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장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서면심사가 더 공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수형자의 의견을 물을 일이 필요성이 없어서 시행된 적이 없으며 면담을 통해 적격대상자를 선정하다면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수형자의 참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준다는 건 연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활한 수형자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함

이와는 반대로 수형자를 직접 출석시켜 얘기를 들어보고 교정·교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진술한 직원도 있었다.

우리 소의 경우 수형자를 회의에 직접 출석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 소년수형자,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출석시켜 재범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참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관련 단기수용자는 금주에 대한 확인 및 다짐을 받는 것부터 시작도 좋을 듯합니다.

6)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 고지

가석방 예비회의 심사결과 탈락으로 결정된 수형자들은 자신들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탈락의 이유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수형자들에게 예비심사 탈락의 이유를 알려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가석방 예비회의에서 탈락한 수형자들은 탈락 사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고 있음. 이는 탈락(신청요건 미달) 인원과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인원도 적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재심 요청을 받지는 않으나 보고문 상담 신청 등을 통하여 탈락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탈락자 모두에게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으나, 상담을 요청하면 대략적인 이유는 알려줍니다. 상담으로 대부분 결과를 납득하는 편이며 수형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 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며, 탈락이유에 대한 면담보고전을 제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탈락의 이유를 일괄적으로 고지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탈락한 수형자가 상담을 요청해 올 경우 탈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주는 은혜적 보상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교정 질서와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가석방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강동범,이강민, 2017:17; 류병관; 2019:23)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

V. 결론

수형자들은 가석방제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나는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었다. 그들은 규율위반과 징벌이 없는 모범적 수형생활, 형 집행률, 재범위험성 등급, 가족 등 보호관계, 기피 작업장에서의 작업 등을 가석방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가석방이 '깨지지' 않고 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석방 업무지침의 <별표2>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요인들 이외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나 피해감정을 가석방 심사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수형자들은 피해자 측면을 자신들의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이 요건을 언급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 사실상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수형자라면 다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정의 첫 걸음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석방 적격심사 사항에서 피해자 관련 요인을 더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형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가석방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불만이었다. 특별히 문의하지 않으면 조건이나 자격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7] 수형자들도 나름대로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정보가 있지만 소수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때문에 가석방에 대해 집체교육을 통해서 알리거나 또는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수형자들은 성범죄나 보이스 피싱,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은 가석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죄명이 아니라 생활태도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가석방 담당직원들의 견해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인 공연음란이나 가벼운 성 추행범은 가석방 기회도 얻지 못하는데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을 보며 특정 죄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수형자나 직원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죄명을 가지고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정 정도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기초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과학적, 개별적 처우의 가치에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론의 비난강도에 따라, 또는 과밀의 완화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석방에서 배제되는 죄명이 추가되고 달라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야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적응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담당 직원 모두 회의적이었다.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환영하였지만 이 제도가 가석방 허가율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가석방 신청률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8]는 것이 점차 판명되면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가석방 담당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형 집행률이 일정 비율에 이르면 '필요적'으로 가석방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범죄경력 자료부터 수용생활 자료 등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되며, 이런 점에서 '행정비용의 낭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이 교도소별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기계적 공정성은 달성될 지언정 수형자들은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고 담당자들은 자료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수형자와 담당직원의 인식은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잘 직시하고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나 폐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회의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마음가짐과 변화정도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가석방 담당직원들은 이러한 출석면담이 공정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거짓으로 교정이 되었다고 연기를 할 때 그것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석방 심사 예비회의에서 수형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법령에서 수형자와 담당교도관의 출석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건에 대해서 출석면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석면담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들은 가석방 신청에 탈락할 때 탈락의 이유를 듣기를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신청하면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형자들은 일선소에서의 예비심사 탈락이유 뿐 아니라 중앙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의 탈락이유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행 지침 상 탈락의 이유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직원 들 중에는 본인도 탈락의 이유를 알고 싶으나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9] 대략의 가능한 설명을 해준다고 말했다. 탈락의 이유를 탈락자에게 모두 공지하는 일이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한 해법이 있을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락의 이유를 몇 가지로 항목화 하여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도만 수형자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석방 심사로 인한 수형자들의 고통을 많이 줄어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교정당국에서도 2021년에는 가석방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가석방 예비회의에 수형자와 관계 교도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고(동 지침 제19조), 강력범들에 대한 심사 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위원 다양화 등 가석방 심사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10]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선 안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장차 평가연구를 통해 분석되고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왕에 가석방 제도에 대한 개선을 꾀한다면 수형자와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7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보상이기 때문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론한다. 또 상담을 신청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관되게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정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이것은 교정 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명시적으로 당국에서 사실을 알려주고 나면 쓸데 없는 소문으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8 필요적 가석방이 도입되고 나서 예전에는 90%에 이르던 허가율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9 담당직원들은 중앙 가석방 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 비슷한 조건의 수형자가 가석방 되었지만 이번 달에는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 수형자에게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10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보도자료(2021.4.28.)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NEWS

2022 •December Vol. 559

백석대학교(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교정본부 견학

일시·장소 11. 10.(목) 13:00, 교정본부 및 국제회의실
견학 인원 백석대 김안식 교수,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등 42명
주요 내용
- 교정본부 견학, 교정홍보영상 시청
- 교정본부장 인사 및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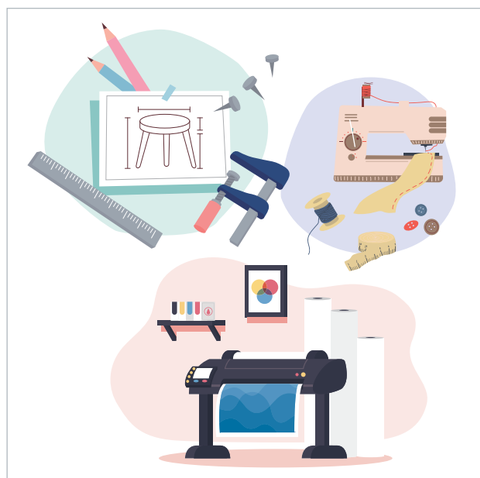
SBS 신규 공익예능 프로그램 촬영

일자·장소 11. 16.(수), 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주요 내용 출연진들의 수용자 체험, 교정시설 및 부서 소개, 교정공무원의 직업적 소명, 개인적 사연 등 인터뷰
방영 일자
- '23. 1. 5.(목) 21:00 서울남부구치소편
- '23. 1. 12.(목) 21:00 서울남부교도소편

「제35회 아시아교정포럼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시·장소 11. 18.(금) 14:00, 백석대학교 대강당
주제 교정교육과 교정상담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2011. 6. 법무부에서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설립 허가

2023년도 교도작업 생산제품 공고(관보 게재)



근거
「교도작업의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4조

관보 게재
11. 28.(월),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내용
교도작업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
- (생산 기관) 안양교도소 등 24개 기관
- (생산 제품) 피복·가구·인쇄류 등 21종 177개 품목

※ '22년 대비 4개 품목 추가(캠핑용 테이블, 자비구매 속옷류 등)

교정기관 NEWS

2022 •December Vol. 559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이동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24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지진 발생 훈련 상황을 부여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달했으며, 실제훈련을 마치고 영상교육 시청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임무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폭력예방 교육 실시

서울구치소는 11월 14일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기관장을 포함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 교도 이승연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11월 10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재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수용동과 작업장 등 시설 참관을 통해 따뜻하고 보람된 교도관의 참모습을 알리고,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교정행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실시

수원구치소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협의회 최선덕 회장이 재배한 배추 1,800여 포기를 수원구치소 직원과 교정위원 등 30여 명이 3일간 다듬고 절이는 과정을 거쳐 수용자 가족들에게 택배로 전달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7일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재학생들은 시설 참관을 통해 보호장비 체험 및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 등을 둘러보며 최신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종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11월 21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고층 건물 화재 대응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범국가적 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상담사와 피지컬 관리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실시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응급상황 조치요령 자체교육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내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상황 조치요령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수용자 진료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교도소는 11월 2일 성북 센트럴치과의원과 수용자 치과 진찰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치과 초빙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덴버주립대학 범죄학과 참관 실시

여주교도소는 11월 22일 덴버주립대학 범죄학과 남궁현 교수 및 재학생 10명의 참관을 실시했다. 남궁현 교수와 학생 일동은 "미국 교정시설과는 다른 한국 교정이 가지는 특색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휘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1월 3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참관인들은 컴퓨터운영선반, 인쇄 등의 직업훈련 과정을 살펴보고 독거 수용동 등의 교정현장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11월 10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황진석 소장은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실시

원주교도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교정시설의 이해와 교정학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참관은 재학생 68명이 참석해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강릉교도소는 11월 10일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건강권 및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 수용 중인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대체복무센터 교육생 견학 실시

영월교도소는 11월 23일 대체복무센터 교육생 6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대체복무센터 교육생들은 구매 창고, 민원실, 보안과 내부 시설 등을 견학했으며, 교육생들은 수료 후 각 교정시설로 배치될 예정이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직원 쉼터 영랑회관 개관

강원북부교도소는 11월 24일 직원들을 위한 쉼터인 '영랑회관'을 개관했다. 명칭 공모전을 통한 직원들의 참여로 정해진 '영랑회관'은 영랑호변에 위치한 강원북부교도소 전 직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회합의 장소라는 의미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1월 8일 평택·안성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실시해 전 수용자들에게 자장면을 급식했다. 평택SM클럽 자원봉사단이 평택지소에 방문해 직접 조리한 자장면은 수용자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제7군단 군악대 소망 화요문화공연 실시

육군 제7군단 군악대는 11월 22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군악대 특유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군악대장은 수용자들의 문화 인격 고양을 위해 매주 열리는 소망 화요문화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호찬

수용자 자녀지원팀 외부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22일 수용자 자녀지원팀 외부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우희경 청장은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직원 자녀 수능 응원 선물 전달

대구교도소는 11월 15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14명에게 '수능 합격 기원 찹쌀떡'을 전달했다. 김남주 소장은 "수능 준비에 고생한 소속 직원 수험생 자녀들을 격려하고자 합격기원 찹쌀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11월 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박수연 소장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강중구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1월 15일 하나레이저주식회사로부터 수용자 물품을 기증받았다. 임창빈 대표는 "이 기증품이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직원 사진 콘테스트 개최

창원교도소는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을은 추억과 함께'라는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선정된 우수작은 교정시설 내 환경개선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정기관 NEWS

부산교도소 / 교사 이재윤

직원 건강검진 실시

부산교도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해 한강수병원과 협약해 진행됐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해오름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 실시

포항교도소는 11월 8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갤러리의 개관을 기념해 미술동아리 December 최원희 회장 등 10명을 초대했다. 장원재 소장은 "해오름 갤러리가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정부 정책 소통 교육 실시

진주교도소는 11월 3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정책의 흐름과 적극행정의 개념, 실천 방안 등 적극행정에 대해 더욱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음주운전 근절 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11월 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1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사과 1,000개를 기증받았다. 김광희 소장은 "힘든 시기에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직원 감사장 수여

안동교도소 소속 교위 최정훈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11월 8일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최 교위는 지난 10월 7일 안동시 모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성인 남자에게 쫓기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20대 여성을 도와 스토킹 범죄를 예방했다. 최 교위는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모범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직원 자녀 수능 응원 선물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1월 14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강성헌 소장은 "지금까지 땀 흘려 노력해왔던 만큼 훌륭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소정의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대체복무요원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11월 15일 대체복무요원 40명과 복무관리관, 복무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도소 인근 까치산 등산을 비롯해 생활관별 족구 리그전·윷놀이 등의 체육행사, 대체복무요원 간담회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최도원

월례회 시상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1월 1일 월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10월 대구지방교정청 모범교도관 교사 이상명, 11월 우수공무원 교위 류충렬 등 9명, 사격우수자 교감 이정윤 등 3명이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교정현장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관 4명은 11월 8일 울산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울산구치소와 국가인권위원회 상호 간 고충처리 업무를 협의하는 기회가 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복지과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

경주교도소는 11월 16일 노후화된 복지과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복지과 화장실은 복지과 직원뿐만 아니라 식사 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샤워실을 겸비한 최신식 화장실로 재탄생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물품 기증

통영구치소는 11월 9일 통영청실회로부터 라면 30박스를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된 라면은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용자 모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1월 15일 밀양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달팽이 봉사단 장학금 수여

상주교도소는 11월 7일 상주중학교와 사벌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적우수학생 및 선행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11월 23일 대전교도소, 대전서부소방서와 합동으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하면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습·복구 등의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교정위원 참관 실시

대전교도소는 11월 14일 대전교도소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 증진과 수용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종교수용동, 가족접견실, 가족만남의 집 등 사회적 처우 현장을 둘러봤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참관 실시

청주교도소는 11월 22일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천안교도소 / 교도 곽태엽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실시

천안교도소는 11월 9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송경석 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불우수용자 가족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은희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태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1월 15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 유태오 청장은 소 내에 있는 직업훈련장과 수용동을 둘러보며 교정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수용자들에게 수용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직접 묻는 등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봤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성준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태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1월 10일 공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유태오 청장은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직원 복지시설, 수용동, 작업장 등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 훈련 실시

충주구치소는 11월 16일 야간에 거실 내 수용자의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하기 위해 진행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김희빈

청렴 OX 퀴즈 대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11월 7일 청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주제로 청렴 OX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퀴즈 대회는 전 직원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2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김안식 교수와 재학생 등 4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참관한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대전지방교정청 순회점검 직원간담회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1월 16일 순회점검 기간 중 직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원간담회에는 각 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서산지소의 혁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정기관 NEWS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태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1월 8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를 방문했다. 유태오 청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중점관리 체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동 증축 등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소속기관 총무과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21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속기관 총무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소속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받은 후 현장에서 청 업무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교도소 / 교위 이현진

응급처치 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대비해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주교도소는 11월 23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지진, 화재, 도주,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가상 상황을 설정했으며,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등 각 실무반 임무의 초동 조치 등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순천보호관찰소장 참관 실시

순천교도소는 11월 21일 순천보호관찰소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해 열린 교정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백금태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참관 등을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더욱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수용자 물품 기증

목포교도소는 11월 7일 교정협의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간식 1,100박스를 기증받았다. 최국진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교정협의회 지원과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직원 인권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11월 14일 인권, 조사, 수용처우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 초빙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 집행 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1월 17일 제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교도소 주요 현황 및 수용동 증축 현장을 점검했으며,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청렴문화 탐방의 날 행사 개최

장흥교도소는 11월 22일 청렴문화 탐방의 날을 맞이해 강진 다산초당과 백련사에 방문했다. 조병주 소장은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 속 청렴에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발

해남교도소는 11월 15일 2022년 통합방위태세 강화에 공이 있는 국가중요시설로 선발돼 통합방위본부와 인근 군부대 점검단의 예방을 받았다. 점검단은 부대시설 현장 확인 후 시설 방호에 관한 전술 토의를 실시했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우수 직원 표창 수여식 개최

정읍교도소는 11월 1일 우수 직원 및 칭찬주인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 직원은 각 부서의 추천을 통해 교도관회의로 선정됐으며, 칭찬주인공은 전 직원의 추천을 통해 교정발전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인천구치소 **교사 이승준**

이승준 교사는 현재 민원실 소속 직원으로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민원 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한 민원인을 발견하고 주의 깊게 살피던 중 민원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순간 달려가 머리 부위를 감싸고 부축해 낙상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했다.

밀양구치소 **시설주사보 이준길**

이준길 시설주사보는 복지과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 담당자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여성수용동 개관을 위해 시설의 미비한 점들을 파악했다. 직접 사용할 여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해 여성수용동 개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충주구치소 **교위 윤창영**

윤창영 교위는 2013년 보안과 근무 시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수시로 실시해 안정된 수용 생활 유도하는 등 수용자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현재 출정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꼼꼼한 사전 준비로 수용자 주변에 교정사고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교도소 **교위 신보경**

신보경 교위는 2010년 임용 후 약 12년 동안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과 취사장 담당 근무자로 취사장 출역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교육을 통해 취사부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주부식·조리기구 등 위생 점검을 통해 수용자 급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자 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루돌프

당근

눈 결정

램프

곰 모양 쿠키

종

막대사탕

아이스크림

머그잔

선물박스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22.11.1.(화) ~ 12.15.(목)
산불신고
산림청
(042)
481
-4119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가을철 산불발생의
약 52% 입산자 실화
산불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원격영상재판은 원거리 법원에 출석하는 수용자의 인권 향상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출석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 재판 지연 해소, 그리고 재판의 비대면 진행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원격 영상재판 시행 전후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행 전

- **직접 공판정에 출석**
- 감염병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재판 지연**
- 장거리 호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
- 보호 장비 사용으로 **심리적 위축**

시행 후

- **출석 없이 영상으로** 재판 참여
- 감염병 등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신속한 재판 진행**
- 호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실현 **약 1억 3천만 원 절감**(시행 후 10개월 간)
- 보호 장비 사용 감소로 **인권 향상**